

브라질 바이오 에너지 “탄탄대로”

가격경쟁력 및 수요증가로 생산 확대 ... 플렉스 자동차 보급 긍정적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가 브라질의 바이오 에너지 산업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피치는 3월6일 발표한 <브라질 대체에너지 산업에 관한 보고서>에서 “바이오 에너지 생산 분야에서 갖고 있는 높은 가격경쟁력과 전세계적인 대체에너지 수요 증가로 브라질이 세계 최대의 바이오 에너지 생산·수출 국가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브라질이 바이오 에너지 생산 분야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로 유리한 기후·지리·지질 조건과 방대한 경작가능 면적 보유, 낮은 토지 가격과 인건비, 정부의 인센티브 확대 등을 들고 “조건들이 브라질산 바이오 에너지의 생산 확대를 가져오고 있다”고 전했다.

2008년 브라질의 에탄올 생산량은 240억~250억리터, 내수시장 소비량은 200억리터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량은 미국 및 유럽연합(EU)의 소비 증가에 따라 2007년 35억리터에서 40억리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가솔린과 에탄올을 혼합사용하는 플렉스 자동차의 대중화와 세계적 차원의 에탄올 사용 증가가 브라질 바이오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밝게 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8년 브라질의 자동차 생산량이 324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플렉스 자동차의 비중은 현재 83.5%에 달하고 있다.

플렉스 자동차는 가솔린 또는 에탄올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가솔린과 에탄올을 섞어 사용할 수 있으며, 브라질 정부의 에탄올 생산 및 사용 확대 방침에 따라 앞으로 시장점유율을 더욱 높여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브라질의 에탄올 및 설탕 산업이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바이오디젤 산업은 주원료가 되는 콩 가격 상승으로 생산 확대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피치에서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담당하는 레비슨 본핀은 “브라질의 에탄올·설탕 산업은 2008-09년 국제 설탕가격의 인상과 에탄올 판매량 증가 등으로 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브라질 에탄올 생산기업들이 중·단기적인 천연가스 공급 부족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3/07>